해·외·업·계·소·식

메인프레임 S/390 신제품 발표

미국 IBM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기업 전자상거래시장을 겨냥, 메인프레임(엔터프라이즈 서버급)인 「시스템(S)/390」의 차기 버전과 스토리지 신제품을 발표했다.

IBM이 발표한 신제품은 3세대 병렬처리형 엔터프라이즈 서버인 「S/390 G3」와 「S/390 멀티프라이즈 2000」 2기종으로 특히 S/390G3의 경우 용량과 성능이 기존 「S/390 CMOS 서버」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IBM은 또 「멀티프라이즈 2000」도 보다 유연한 네트워킹과 컴퓨팅 파워를 원하거나 유닉스 및 윈도 NT시스템보다 미더운 대안을 원하는 기업고객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들 시스템의 가격과 운용비용도 크게 낮아져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앞으로 6개월 안에 20억달러치 이상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메인프레임시장의 가격하락추세에 따라 IBM의 메인프레임 매출액도 해마다 떨어져 현재는 6년전의 50%에 불과한 규모지만 여전히 메인프레임은 IBM 전체 매출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이에 따라 IBM은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거래의 증가세에 편승, 이번 신제품 발표를 계기로 중간규모 및 대기업 수요를 적극 공략할 방침이다.

투명바코드 개발

일본의 세라믹 바코드 개발·판매업체인 시그믹스가 히타치막셀과 공동으로 육안으로는 거의 볼 수 없는 바코드를 개발했다.

「셀라레벨 스텔스」로 명명된 이 바코드는 유리 등에 인쇄할 수 있으며 특히 적외선으로만 해독하기 때문에 복제도 방지할 수 있다.

이 바코드는 히타치가 개발한 형광체를 사용, 도자기·유리·금속 등의 표면에 두께 0.1㎜의 세라믹 제실로 부착하거나 용접·납땜하는 방법으로 인쇄한다.

섭씨 250~1,200도의 고온에도 견디고 각종 용접이나 산·알칼리에서도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시그막스측은 밝혔다.

또 특정 적외선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특수한 해독기가 필요하고 가시광에서는 투명체에 가깝다. 이 때문에 얼핏 보면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앞으로 화장실용 요업제품이나 건축자재, 자동차 창유리 등에 채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윈도NT·맥 OS 탑재 PC신제품 2종 발표

미국 모토롤러가 윈도NT와 맥OS를 각각 운용체계로 채용한 다양한 기종의 PC 신제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윈도NT를 채용한 워크스테이션 및 서버급인 신제품 「파워스택」과 맥OS를 채용한 매킨토시 호환 데스크톱PC인 「스타맥스」는 모두 모토롤러의 파워PC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가격은 파워스택이 워크스테이션급 2,500달러부터 서버급 1만달러 정도며 스타맥스는 1,600에서 4,000달러까지다.

모토롤러는 10월부터 이들 신제품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ATM 아답터에 OS/2 왑 서버 SMP 지원기능 추가

아답텍사는 OS/2 왑 서버(Warp Server) SMP를 완벽히 지원하는 드라이버를 자사의 ATM 아답터에 장착한다고 발표했다. OS/2 왑 서버 SMP는 중요 데이터의 고속 이동에 따른 전반적인 성능 향상, UNI 3.0 및 3.1에서의 호환성 강화, 시스템 수준의 강화된 가변성을 구현하는 복수 아답터 사용 환경 등을 제공한다. 이로써, 아답텍사의 ATM 아답터는 이상의 강점들과 함께 강력하고 광범위한 드라이버 지원, 설치 및 구성을 쉽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강력한 성능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위성수신기용 마이크로 칩

개발

미국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조업체인 VLSI 테클놀로지가 디지털 위성수신기의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마이크로칩을 개발했다.

이 칩은 기존 위성수신용 디코더에 사용돼 온 여러개의 칩기능을 하나로 집약한 것으로, 이를 채용할 경우 미국에서 현재 디렉 TV의 175개 채널을 수신할 수 있는 350~400달러의 디코더 가격을 향후 1년 내에 200달러 이하로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는 그동안 비싼 가격때문에 위성수신기의 보급확산이 부진해 온점을 감안할 때 향후 위성수신기시장 대중화의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렉 TV·카날플뤼스 등 세계 위성 및 케이블방송 관련업체들이 VLSI의 새로운 칩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5만6천bps 모뎀 곧 출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뎀보다 속도가 3분의 2정도 빠른 5만6천bps급 모뎀이 빠르면 연내에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요 모뎀 관련업체간에 5만6천bps급 속도의 모뎀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대의 모뎀업체인 US로보틱스가 연말까지 5만6천bps급 제품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모뎀용 반도체업체인 록웰인터내셔널사도 5만6천bps급 전송기술을 개발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스코키사도 올 연말께 5만6천bps급과 맞먹는 고속제품을 판매할 계획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계 모뎀용 칩세트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록웰 인터내셔널은 5만6천bps급 전송기술을 오는 11월 개최되는 켐덱스쇼에서 공개하고 이 기술을 채용한 칩세트를 97년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모뎀업체들의 5만6천bps급 칩세트 탑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신 네트워크 이용의 확산으로 모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의 속도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고, 현재는 기존 일반 전화선에 연결하는 아날로그방식의 모뎀에 주로 의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케이블이나 ISDN과 같은 대용량 전화선과 연결함으로써 모뎀의 전송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DLP사업 본격화

TFT LCD와 함께 빛과 거울을 이용해 DLP(Digital Light Pro-Cessing)라는 새로운 프로젝션용 디스플레이기술을 개발한 미 TI사가 디지털이미지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TI본사가 최근 딘클루브 부회장을 최고책임자로 하는 디지털이미지사업부를 신설했으며 이 사업부는 TI의 독자적인 DLP기술을 응용해 상품화한 DLP엔진의 개발·생산·판매를 전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TI코리아는 아직 한국내에는 DLP사업과 관련된 전담조직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고객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에서 각종 기술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I의 DLP엔진은 실리콘웨이퍼상에 16미크론 크기의 미세한 거울을 1미크론 간격으로 심어 이 거울을 통해 빛이 반사되는 것을 제어해 화상을 표현하는 장치인 DMD(Digital Mirror Device)가 핵심을 이루는 제품으로 지난해 미 SID(Society of Infermation Display)로부터 「올해의 디스플레이상」을 수상한 제품이다.

64Mb 플래시메모리 내장 PC카드 5종 개발

일본 히타치제작소에 미쓰비시전기가 업계 최초로 64Mb 플래시메모리를 내장한 PC카드를 개발 10월, 11월에 각각 샘플 출하를 시작한다.

양사가 공동개발한 PC카드는 히타치가 개발한 AND형 플래시

메모리를 채용한 것으로, 최대 75MB급 대용량 제품도 포함돼 있다.

이 카드는 PC카드 업계표준인 ATA(어드밴스트 테크놀로지 어태치먼트)에 준거한 제품. 기존 ATA규격 카드는 16Mb나 32Mb의 플래시메모리를 탑재한 기억용량 40MB급 제품이 주류를 이뤘다.

기억용량에 따라 75MB·64MB·45MB·30MB·15MB급 등 다섯 종류가 있는데 작동전압은 모두 3.3V·5V다.

두 회사는 이 PC카드를 노트북 PC와 PDA(개인휴대정보단말기), 디지털카메라용 등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음성인식 SW 개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환자의 방사선관련 정보를 컴퓨터에 직접 구술하면 이를 인식하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됐다.

미국 IBM은 방사선 학자들이 환자의 기록을 컴퓨터에 직접 구술해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메드스피크/레이디올로지」를 개발했다.

IBM의 토머스 윗슨 연구소와 뉴욕의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연구소 및 보스턴의 매사추세츠 제너널 병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이 소프트웨어는 2만5천 단어가 수록돼 있고 정확도가 95%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드스피크시스템은 그동안 IBM의 음성인식제품 가운데 최초의 실시간 연속 스피치제품으로 대부분의 음성인식 시스템이 구술 및 인식속도의 불일치로 발음을 천천히 해야 하는 반면 이 제품은 정상적인 속도로 구술해도 실시간으로 이를 인식한다.

IBM은 소프트웨어와 소음제거 마이크로폰으로 구성된 이 시스템의 이용으로 의료계에 있는 방사선 의학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진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방사선 의료진들이 X레이나 CAT스캔을 판독하고 이와 관련된 환자의 정보를 테이프 리코더에 녹음해 놓으면 타자수들이 이를 타이핑해 다시 의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넘겨준다.

그러나 메드스피크시스템 사용으로 이러한 과정과 비용을 대폭 줄이는 한편 환자들의 정보도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기능 양방향 삐삐 발표

미국 모토롤러가 전자우편·팩시밀리 전송·무선호출기끼리의 정보교환 등이 가능한 소형 양방향 무선호출기를 발표했다.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무게 6.3온스(약 180g)의 이 무선호출기 「페이지라이터」는 기존 무선호출기와 같은 문자·숫자 겸용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토롤러는 이 제품에 접을 수 있는 소형 키보드가 장착돼 있어 기존 양방향 무선호출기와 달리 전화, PC와 연결하지 않고도 키보드를 통해 메시지를 입력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또 이 무선호출기를 PC와 연결하면 무선호출기로 전송받는 정보를 PC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바기반 응용 프로그램 개발툴 시험판 발표

미국 시맨텍이 자바기반 응용 프로그램의 속성 개발툴인 「비주얼카페」 시험판을 발표했다.

이 제품은 시맨텍의 C 및 C 툴 세트에 기반한 자바 툴이 갖는 다양한 특징인 비주얼베이식과 델파이 개발업체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험판엔 D&D(끌어 떨구기)방식의 GUI 빌더, 컴포넌트 관리 시스템, 그래피컬 디버깅 디바이스 등이 포함됐으며 애플리케이션 작성을 위한 자바 컴포넌트의 라이브러리 등이 추가될 것이라고 회사 관계자가 밝혔다.